

네코마가다케

네코마가다케는 해발 1,404m의 비활화산입니다. 약 40만 년 전의 분화로 봉우리 하나가 산체 봉괴해 오구니누마 늪이라는 호수가 형성되었습니다.

네코마가다케라는 이름은 ‘요물 고양이 봉우리’라는 의미입니다. 이 이름은 산에 얽힌 고양이와 관한 여러 전설에서 유래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에 따르면, 산에 살던 흉악한 고양이가 인간으로 둔갑해 마을 사람들을 피어내어 그 육신을 먹었다고 합니다. 불교 승려인 구카이(칭호는 홍법대사: 774~835년)가 이 고양이를 잡아 산 하부에 있는 봉우리의 거암군 속에 봉인했다고 전해집니다.

네코마가다케에는 약 5.5km의 ‘네코마가다케 메아리 탐방로’가 정비되어 있습니다.